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주일예배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7월 6일 (제 1313 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컬럼

재산 1호는 내 육체다

어느 장로가 벌써 몇 차례 쓰러졌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으키셨지만, 나는 그 장로에게 “제발 졸리면 자고, 피곤하면 쉬어라.” 하고 신신당부했다. 주님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 16:26)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재산 1호는 내 육체다. 그런데 육체를 해치는 주범이며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실제 실험 결과가 있다. 캐나다의 한 학자가 일주일간 쥐가 있는 곳에 매일 아침 고양이 양이를 지나가게 했다. 며칠 뒤에 보니 쥐의 위장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고, 심장도, 뇌도 거의 다 망가져 있었다. 그저 고양이가 지나가기만 했을 뿐인데 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식물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리를 지른다. 식물에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거나, 줄기를 자르거나 담배 냄새 같은 것에 노출시키면 소리를 지른다.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영역의 주파수여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나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더욱 크게 소리 지른다.

스트레스 받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들짐승, 날짐승도 나쁜 환경에서 도망치지 않던가. 맞지 않는 자와 일한다거나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한다거나 하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 어느 유명 교수가 강의를 끝내고 나오는데 한 학생이 질문했다. “교수님, 스트레스 홍수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교수는 딱 한 마디 했다. “Appreciation!(감사)”, 즉 감사하며 살면 스트레스가 없다는 말이다. 감사는 항암제요, 성장촉진제이며, 이보다 강력한 치유제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고 하신 것이다.

그리고 방언기도를 하면 쌓인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간다(사28:11~12). 방언기도를 하면 온몸에서 독소가 빠지는 것을 나는 매번 느낀다. 무시로 방언기도를 하면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건강관리 잘해서 무병장수하는 삶을 살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나는 성도들의 기도를 타고 다닌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기도로 돕는 성도들에게 단지 토퍼서비스 차원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실제로, 피부로 절감한다. 집회에 임할 때 목사님 스스로 엄청난 기도로 준비하시기도 하지만, 노량진 기도회를 시작한 이후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현장에서 실상으로 체감되고 있다. 한국의 수요일예배에 목사님께서 영상메시지를 통해 허리케인에 대해 언급한 바로 이틀날 오전, 목회자세미나를 위해 출발했는데 곧 무너질듯한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던 마따모로스(Matamoros)의 하늘이 푸르게 열려있었다. 목사님은 이번 집회에 모든 비용을 제공한 빅토르(Vitor) 목사 교회를 방문하여 목회자세미나를 진행하셨는데, 먼저 투석을 받으며 고생하

지역이 미 외교당국에 의해 여행금지령이 내린 곳이었다.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는 남미 각국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고, 마약과 총기 사건 등이 빈발하여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는 것이다. 하여 그곳을 방문하게 되면 절차도 까다롭고 기록도 남게 되어 혹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어찌하면 좋을지 문의해왔다. 목사님은 그들에게 “왜 부정에 동의하느냐? 기도한 것을 믿어야지.” 하며 일축하셨고, 그들도 바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집회에 합류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놀랍게도 아예 멕시코(Mexico) 방문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게 해주셨다. 국가 간 출입국 과

다는 것이다. 그러니 또 다른 걱정이 생겼다. 멕시코를 이렇게 아무런 입국 확인도 없이 들어갔다 나중에 출국할 때나 미국 입국할 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였다. 집회를 마치고 떠나기 전날, 국경 통과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니 이른 시간에 떠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도 받았다. 서둘렀다고 했지만 10시 가까운 시간에 떠나게 되었고, 국경에 가까울수록 차량이 몰려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헤라르도(Gerardo) 목사 말이 평소보다 차가 없었다. 그리고 처음 미국 비자를 받은 이현숙 선교사만 도장을 찍으면 된단다. 하여 이 선교사만 이민국 절차를 밟고 나머지 일행은 여권만 제시해놓고 기다렸다. 한 30분 정도 지나 이 선교사에게 6개월 체류



2025 멕시코 마따모로스 목회자세미나

는 빅토르 목사님과 그 아내를 인수해주시고, 목회 성공을 위해서는 성도들의 정보에 빨라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요동하며 떠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뻐 찬양하는 천국잔치가 이어졌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마따모로스 집회를 마치고 국경을 넘어 미국 매캘런(McAllen)으로 가는 여정이었다. 이번 집회에는 미국 마이애미(Miami)에 거주하는 영어통역관 박보배 집사의 두 아들 매투(Matthew)와 앤드류(Andrew)가 동행하기로 했다. 그들은 영어에 능통하고 스페인어도 가능하기에 집회에 매우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따모로스

정에 여권심사와 함께 여권에 출입국 도장을 찍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어느 나라나 누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은 기본 메뉴얼이기 때문이다. 만일 그런 절차가 무시되면 범죄자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며 어떤 일들을 벌일지 어찌 알겠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외집회 25년을 다니며 육로로 국경을 통과하는 경우 반드시 차에서 내려 여권을 제시하고 짐을 검사하는 과정을 거쳐왔다. 그런데 멕시코로 들어가는 과정에 국경을 관리하는 경찰이 차로 다가오더니 운전석 창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고는 그냥 통과시켰다. 우리는 언젠가 차를 세우고 내리길 기다렸는데 벌써 멕시코로 들어왔

도장이 찍혔다. 그리고 우리는 차에 올라 그대로 미국으로 들어왔다. 돌려받은 여권 어디에도 멕시코를 다녀온 흔적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매튜와 앤드류의 열려를 아시고 나중에 당할지 모를 불이익을 해결해주시려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여행금지구역 방문의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조치해주셨다. 한마디로 문제의 원천을 제거해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목사님이 갈수록 기도를 강조하시는 이유를 알겠는가? 기도는 우리 삶의 마스터 키이기 때문이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5:16).

한은택 목사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이어졌다



영어통역관 박보배 집사 가족과 함께



빅토르 목사 부부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12:1~17)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히스기야는 죽을병에서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사38:2~3).

한나는 ‘나도 브닌나처럼 아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와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삼상1:10~11).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하루 세 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단6:10).

엘리아는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문을 열어 가뭄이 해소되고,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엘리아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왕상18:42).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26:39).

위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모두 당면한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란 현존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진실되게 아뢰는 것입니다. 내가 직면한 문제, 당장 필요한 것들을 가감 없이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실탄 없는 총을 든 자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빌4:6).

‘모든 염려’가 곧 직면하고 당면한 문제들 아닙니까? 그것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기에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눅18:27). 더욱이 그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시니 다 해결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40년 목회의 성공비결입니다. 이 성공비결을 솔직하게 다 알려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의 친구, 곧 봉우(朋友)

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라 하시며 숨김없이 다 알려주셨듯이, 저 역시 같은 마음에서 다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친구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와 마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 해결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세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런 서두도 필요 없습니다. 마음이 급한데 그런 말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아버지, 돈 필요해요.”, “아버지, 직장이 없어요.”, “아버지, 병원에서 못 고치대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

하세요. 하갈처럼 통곡도 하고 목이 터지라 부르짖어 보세

요. 분 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렘33:3). 남이 알면 안 되는 비밀스런 문제를 안고 끙끙 앓고 있습니까? 그러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와 일대일로 만나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해결해주십니다(마6:6).

항상 그랬지만, 이번 멕시코 마따모로스 집회에서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멕시코를 출발하기 전부터 마따모로스에 대해 여러 정보들이 입수되었는데, 그곳이 40도를 넘나드는 고온다습한 기후에, 마약과 총기사건이 많은 지역이라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량진 기도처에서, 전국 지교회에서도 매일 이 집회를 두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허리케인이 마따모로스를 관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외집회 장소가 폐쇄되고, 주최측은 급하게 작은 농구장을 빌려왔습니다만, 허리케인이 관통하면 실내 장소인들 누가 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현지 성도들도 매일 100여 명이 모여 허리케인이 피해가기를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저도 7시간 이상을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요? 하나님이 허리케인의 방향을 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출발 전에 미국 마이애미에 사는 영어통역관인 박보배 집사의 두 아들 매튜와 앤드류가 합류하기로 했는데, 미 정부가 마약 및 총기사건이 빈발하는 마따모로스를 여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여 그곳을 방문 시에는 재입국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며 어찌하면 좋을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기도했나? 기도한 것을 믿어야지.” 그들은 제 말에 믿음을 가지고 마따모로스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멕시코로 넘어가는 국경에서 여권 검사는커녕 운전석 창으로 한번 쓱 보고는 통과하라는 겁니다. 집회를 마치고 재입국할 때도 여권과 인원 확인만 하고 통과시키는 겁니다. 국경 통과 시 여권에 도장을 찍는 통상적인 절차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멕시코를 다녀간 흔적을 아예 없애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런 겁니다.

친구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호텔에 가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키가 있습니다. 마스터키입니다. 그 키로는 모든 방문을 다 열 수 있습니다. 기도가 바로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되게요?” 하시는 분들, 그러다 마다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만 했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다 일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출14:15~16). 마라의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출15:25).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시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구하지 않아서, 구한 것을 믿지 못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두 모여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행12:5). 그랬더니 옥에 천사가 찾아와 두 군사 틈에서 사슬에 매여 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더니 쇠사슬이 풀어지고, 멀쩡히 눈 뜨고 있는 파수꾼의 앞을 통과하여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요, 기도하면 이처럼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납니다(사43:19). 기도하면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병에서 나음을 입고, 기도하면 죄에서 사함을 받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고, 기도하면 얽히고설킨 것들이 풀리고, 기도하면 장애물이 없어집니다(시119:165). 한 마디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막1:35), 저녁에 기도하셨으며(막6:46), 철야기도도 하셨고(눅6:12), 산기도도 하셨습니다(마14:23).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쉬지 말라’ 하신 것은 오직 ‘기도’뿐이고(살전5:17),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삼상12:23). 기도해야 마지막까지 탈 나지 않고 갈 수 있고(벧전4:7), 사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며(눅22:46), 삶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습니까? 배필을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을 원합니까? 이 나라에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까? 어떤 문제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친구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습니까? 배필을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을 원합니까? 이 나라에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까? 어떤 문제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친구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습니까? 배필을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을 원합니까? 이 나라에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까? 어떤 문제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친구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습니까? 배필을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을 원합니까? 이 나라에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까? 어떤 문제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기도는 내 삶의 인프라 구축이다

친구 여러분,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입니다. 교회에서는 모두 모여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행12:5). 그랬더니 옥에 천사가 찾아와 두 군사 틈에서 사슬에 매여 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더니 쇠사슬이 풀어지고, 멀쩡히 눈 뜨고 있는 파수꾼의 앞을 통과하여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요, 기도하면 이처럼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납니다(사43:19). 기도하면 12년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의사도 어찌할 수 없는 병에서 나음을 입고, 기도하면 죄에서 사함을 받고,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고, 기도하면 얽히고설킨 것들이 풀리고, 기도하면 장애물이 없어집니다(시119:165). 한 마디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막1:35), 저녁에 기도하셨으며(막6:46), 철야기도도 하셨고(눅6:12), 산기도도 하셨습니다(마14:23).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쉬지 말라’ 하신 것은 오직 ‘기도’뿐이고(살전5:17),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삼상12:23). 기도해야 마지막까지 탈 나지 않고 갈 수 있고(벧전4:7), 사는 동안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며(눅22:46), 삶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속을 썩입니까? 사업이 안 됩니까? 직장에서 상사가 괴롭습니까? 배필을 구하고 있습니까? 교회 부흥을 원합니까? 이 나라에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까? 어떤 문제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 객원컬럼 ::

:: 교단소식 ::

스테이블코인 시대의 문턱에서

2025년 6월 18일, 미국 상원은 초당적 합의로 '미국 스테이블코인을 위한 국가 혁신지도 및 확립법안(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이하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 규제를 넘어, 미국이 글로벌 금융질서의 주도권을 디지털 화폐 영역까지 확장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개인과 기업은 중앙은행이나 시중은행의 개입 없이도 거의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수수료와 부대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어들며, 이는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개발도상국에서 특히 빠르게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자금 이동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머지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판매한 코인의 수익은 전액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운용처는 미국 재무부의 3개월 만기 국채(T-bill), 또는 시중은행 예치로 제한됩니다. 또한 월별 보고 의무를 통해 투명성과 환매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대규모 인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해석됩니다.

정지권의 입장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통 금융권과의 연계

를 중시하며 기존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를 선호하는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빅테크와 유통 대기업까지 발행 주체로 참여시키는 확장 전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향후 10년 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현재보다 최소 50배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연준의 역레포 잔액은 한때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고점 대비 10% 수준으로 감소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표면적으로는 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글로벌 민간 자금을 유치함으로써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려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단순한 금융 혁신을 넘어, 국가 간 디지털 통화 패권 경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제도화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글로벌 자금을 흡수하게 된다면, 이에 대항하는 국가들은 자국 통화의 신뢰도와 자본 유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미국 내 정책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국제 금융 질서의 재편을 촉발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 속에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시대를 분별하고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임윤석

:: To Be Succeeded ::

기도하면 산다

기도원 집회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다. 꿈에 나를 죽이겠다는 귀신이 나타났고, 나는 필사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 명령했더니 사라졌다. 꿈에서 깬 후, 그간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 나에게서 살 소망과 기쁨을 빼앗은 존재가 바로 악한 영이며 귀신임을 정확히 알았다. 예수 이름으로 쫓았더니, 놀랍게도 이후 마음이 새로워지고 기쁨과 소망이 소생되었다. 또 어느 날은 한 지체를 놓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도를 강력히 도우시더니 그의 생각과 마음에 공포 묶인 결박을 끊으셨다. 그 후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이전보다 훨씬 밝고 환한 모습이었고 곧이어 맡겨진 주의 일도 잘 감당해냈다. 이 사건들을 통해 분명히 깨달았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그분이 하신 일이다.

우리 목사님은 말씀하신다. 농사는 잡초와의 싸움이고, 신앙생활은 귀신과의 싸움이라고. 맞다. 외적으로는 풍요롭고 발전된 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잃고 낙심하며 잘못된 선택에 이르기까지 안타까운 일이 수 없는 것은, 어둠의 주관자 악한 영과 귀신이 우리 생각과 마음의 조그마한 틈이라도 비집고 들어와 우리를 망하게 하

고, 병들게 하며, 영과 육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히 절도요, 강도라고 명명하신다(10:8).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믿음, 담력 등 좋은 것은 빼앗아 가고, 두려움과 근심, 분노와 낙담 같은 나쁜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가져다 놓고는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은 기도를 통해 귀신과 악의 영을 여지없이 몰아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마12:28). 이것이 우리를 죄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막9:29), 목사님은 사도 바울처럼 '나를 분반으라고 외치시며 거저거저 기도를 강조하신다. 목사님처럼 하루의 시작과 끝을 기도로 열고 닫아보자. 무시로 기도해보자. 모여서 기도하자. 기도하면 살 수 있다. 기도하면 살아난다. 왜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엡6:18).

이국진 사모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즘 청장년부에서는 새로운 노방전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플로깅 전도라고 하는데요. 플로깅(Plogging)은 스웨덴어 Plocka upp(줍다) + Jogging(조깅)의 합성어로,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복음도 함께 전하는 형식의 노방전도를 말합니다.

플로깅 전도를 하며 좋은 점이 많습니다. 단채옷을 입고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이니, 복음을 접하는 분들의 마음이 좀 더 쉽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준비해 간 전도지도 잘 받아주고, 어느 교회냐고 묻는 분들도 많고요. 한번은 이런 때도 있었어요. 한 상가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 사장님이 나오셔서 정말 고맙다고 500ml 물을 여러 통 나눠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할 일을 이렇게 와서 도와주니 참 고맙다고, 대체 어느 교회냐고 물으시면서 말이죠.

또 청장년부의 특성상 어린 자녀가 많은데, 전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좋은 본이 되어 주는 것 같아 이 부분도 참 기쁩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전도하는 거 아시나요? 처음엔 주저하던 아이들도 이젠 제법 익숙하게 전도지를 전하며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쓰레기를 줍는 아이들도 많고요. 부모와 어린 자녀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모습, 우리가 봐도 이쁘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요?

전도할 때 우리는 가장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묶인 문제도 더불어 풀리게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장 고귀한 사명인 이 복음 전파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도 꾸준히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다른 게 아니고, 모이면 기도하고, 흠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짝이요.

장명훈 집사



:: 낮은 울타리 ::

항상 기뻐하라

코로나 때의 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정말 오랜만에 서울 대학부에서 경배와 찬양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뻐 앞자리에서 나가 뛰며 찬양했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저를 툭툭 쳤습니다. 친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저를 성전 뒤로 끌고 가더니 이야기했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지금 코로나로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응급실에 갔대." 저는 마음이 쿵 했습니다. 아빠는 갑상선암 때문에 두 번이나 수술하셨기에 특별히 아빠가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가족끼리 최대한 조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빠가 코로나이고,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엘 갔다니... 게다가 들어보니 코로나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찾지 못해 엄마와 아빠가 밖에서 꽤 고생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밖으로 나가 눈물을 흘리며 언니랑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집에 가고 싶어. 이 마음으로는 찬양 못할 거 같아." 당시 저는 대학부 팀장을 맡고 있었고, 언니는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으로는 들어가서 찬양하며 예배 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때 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 감정과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의 의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적혀있습니다.

저는 바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는 다시 기뻐 뛰며 찬양하는 대학부원들 사이로 들어가 다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빠 병세는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이 기억은 아직도 저에게 깊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심할 때마다 이 사건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늘 지켜보십니다. 그러니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시다.

장수정

2025 Summer Camp를 앞두고



2025년 여름성경학교와 전국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33일 앞두고 서울 및 인천의 유아유치부, 중고등부 교사들과 대학청년부 젊은이들이 노량진 교육관에 가득 모였다. 이날은 특별히 이시대 목사님께서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한 특별예배를 인도하시는 날이었다. 우리는 2025년 여름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를 앞두고 이 하

나님 나라의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저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제 인생의 롤 모델로 생각합니다. 이유인즉슨 요셉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된 자로 그 일을 묵묵하게 해낸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에 충성하고, 보디발의 집사로 충성하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도 충성합니다. 잠언 기자가 언급한 이 사람은 딱 요셉인 것입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잠22:29).

수련회를 앞두고 각자에게 부여된 다양한 소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찬양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영혼들을 챙기는 일을 준비하는 등, 이렇게 맡은 자리에서 자기 일에만 충성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작년보다 더 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누가 하느니 마느니 남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내 할 일만 집중해서 하면

됩니다. 모두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우리 교단의 큰 천국잔치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께서서는 요한계시록에 주의 사자로부터 칭찬받은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처럼 되기 위한 일꾼의 자세를 말씀해주셨다. 첫째,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하고, 둘째, 하나님은 맡기신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과 책망을 하신다는 것이며, 셋째, 이 사역을 내가 했다는 생각을 버리고 무슨 일에도 감사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1년 중 성경학교와 청소년 연합수련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에 가장 큰 사역이다. 2025년,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전대미문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맡은 바 충성되게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천국잔치에 나를 사용해주심을 감사하며, 2025년 슬로건 대로 전대미문의 기적을 행하는 성경학교와 청소년 수련회를 만들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4:2).

송현혜 생도

전국 연합 청소년 수련회

중고등부 7월 28(월)~30일(수)

청년대학부 7월 31(목)~8월 2일(토)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문의: 02.533.9191

:: 내가 매일 기쁘게 ::

신앙의 박스권을 넘어

주식시장에 주가가 일정 범위에 갇혀 횡보하는 ‘박스권’이 있듯, 나의 신앙생활도 익숙한 패턴에 머물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성숙한 믿음을 향한 수고와 경계를 다짐했지만, 어느새 그 결심이 흐려지고, 현재 이상으로 애쓰는 것이 번거롭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왔다. 문득, 내 신앙이 영적인 박스권 안에 갇힌 것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다.

늘 감사한 것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어김없이 응답해주신다는 것이다. 환경의 변화, 물질의 축복, 만남의 축복처럼 눈에 보이는 응답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응답은 말씀과 설교를 통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주시는 것이었다.

수년 전, 어떤 목표를 위해 치열하게 기도하며 정말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 있었다. 나는 이 경험을 지금까지 동기 부여의 소재로 삼아왔지만, 어느새 이것이 내가 그어 놓은 한계가 되어있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이 박스권을 벗어나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이 박스권을 넘어 더 높은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지점이 존재한다.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기도와 노력으로 임계점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신다.

액체가 기체로 변하듯, 물질의 상태가 바뀌는 이 임계점

을 돌파하려면 아마 해본 적 없는 연단이 뒤따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연단을 통해 신앙의 임계점을 뛰어넘으라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는다.

신앙의 박스권을 넘어 임계점을 돌파하여,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려는 나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4:13).

전호정

rockerjhj@naver.com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섬김의 선순환

어느 날, 기도 중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자에게 보여주시며, 그를 후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명령하셨습니다. 그를 못 본 지 10년이 넘었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후원하라고 하시니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수소문하여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미전도 종족 선교사로서, 교회를 찾아보기 힘든 이슬람 국가에 파송되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분과의 인연이 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지교회에 없는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터라 말씀 테이프, 비디오, 그리고 장성 기도원 집회를 통해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랐습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예배를 드릴 수 있던 때가 아닌지라 주일에는 그 지역의 타 교단 교회에 나갔습니다. 고3 시절 그곳에서 그분을 알게 되었는데, 어릴 적부터 그 교회에서 자란 다른 친구들은 지난날 교회 교육부서의 담당 교사와 제자로 만난 적이 있기에 그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친근히 대했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은 없었지만, 저도 그분께 공손히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토요일마다 고등부의 저녁기도회가 끝나고 교회에서 그분과 우연히 마주치면, 저와 친구들을 차에 태워 가까운 고속도로 휴게소로 데리고 가서는 우동 한 그릇을 사주곤 하셨습니다.

다. 고단했던 고3 시절, 작은 차에 친구들과 포개어 앉아 차창 밖의 야경을 바라보고, 야식을 나눠 먹으며 함께 웃던 그 순간이 귀한 추억이 되었기에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짧은 인연으로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라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명령하셨고, 예수중심교회에 소속된 성도임을 밝히고, 12년째 매달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종종 선교지의 소식을 전하며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많은 가난한 그곳에서 한국 라면 한 그릇을 아이들에게 대접하면 그들의 부모가 찾아와 ‘어떻게 남의 아이까지 끼니를 챙겨줄 수 있냐’면서 신기해하고 진심으로 감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교회 하나 없는 척박한 무슬림 지역에서 따뜻한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이야기를 듣고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저의 고3 시절, 선교사님은 파송되기 전에 훈련받고 있던 때라, 우동 몇 그릇을 저와 친구들에게 대접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우동 한 그릇의 귀한 섬김을 받았던 한 소년이 자라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후원한 물질이 라면 한 그릇의 따뜻한 섬김이 되어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 쓰임 받고 있으니, 수년 전, 행방을 모르는 한 사람을

후원하리던 하나님의 명령이 뜬금없는 일이 아니라 섬김받은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작은 물질을 보냈지만, 이제는 라면 한 그릇의 섬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또 다른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기쁨 또한 소망과 함께 기도를 담아 선교헌금을 보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섬김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많은 선교사님, 주의 종, 그리고 믿음의 선배님들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는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섬김받은 자로서 섬기는 자 되어 지나온 자리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남기고, 생을 마치는 날, 사랑하는 예수님 품에 안겨 잘했다 칭찬받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정명관

v-777@naver.com